재가불자는 한국불교의 한 축

불교에서 출가와 재가는 그 수행방법이 다를 뿐, 교단을 형성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불교계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여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계종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사회법의 헌법에 해당하는 조계종 종헌에 종단은 사부대중으로 구성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구성원인 사부대중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법정신의 표현이다. 하지만 현실은 출가대중과 재가대중의 철저한 차별로 나타난다. 종단의 모든 법을 제·개정하는 입법기관인 중앙종회가 전원 출가대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종무기관인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은 사부대중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평사원부터 차장까지 하급직 종무직은 재가대중이 맡고 국장, 부·실장, 원장은 출가대중이 맡고 있다.

교단의 어엿한 일원, 차별없어야
법·정서 따로…공동체의식 필요

물론 재가대중의 대표조직인 중앙신도회의 구성에 관하여 종헌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종단운영에 어떠한 참여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종법인 신도법에 조계종의 모든 사찰의 주지는 반드시 신도회를 구성하고 사중의 소임자 스님들과 신도회의 임원들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공개를 비롯하여 사찰의 중요한 대소사를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개선책은 없을까? 지난 94년 종단 개혁 때 중앙종회의원 몇석을 재가자에게 할애 한다는 개혁안이 나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필자의 생각으론 중앙종회에 재가대중이 들어간다는 것이 종단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서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종헌에 명시된 신도대표기구인 중앙신도회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고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된 사항들을 중앙종회에서 받아서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재가대중 대표기구의 위상을 강화해 주었다.

일단 가장 현실적인 재가대중의 종단과 사찰운영의 참여방식은 바로 '사찰운영위원회'다. 이 제도는 그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주지 인사고과에 반영 하고, 재가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이 방식이 바람직한 제도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출가대중과 재가대중이 그 격은 달라도 종단과 사찰의 운영에 더불어 함께 한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가대중의 도덕성과 재가대중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어 그 격에 맞는 지위를 부여하고, 그것이 종단의 구조 속에서 온당한 역할분담으로 발전해야 늘 주변이요 대상이요 객체였던 재가대중이 사부대중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연(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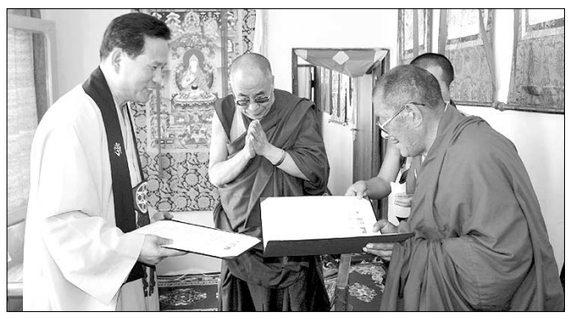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진각종 '세계화' 발판 마련

인도·티베트와 문화교류 확대 양해각서 교환

진각종이 티베트와의 교류를 계기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한편, 한국 밀교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한다.

8박 9일간의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치고 6월 18일 귀국한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는 24일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효암 통리원장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온 밀교의 금강계 37존 만다라 관정 의궤가 티베트 불교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으며 진각종의 수행의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계기로 진각종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세계 밀교종단과의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진각종은 금강계 37존 만다라와 육자대명왕진언이 티베트 불교에서도 신봉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달라이 라마(가운데)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왼쪽)이 게쉐왕디 따보승원장과 정신·문화적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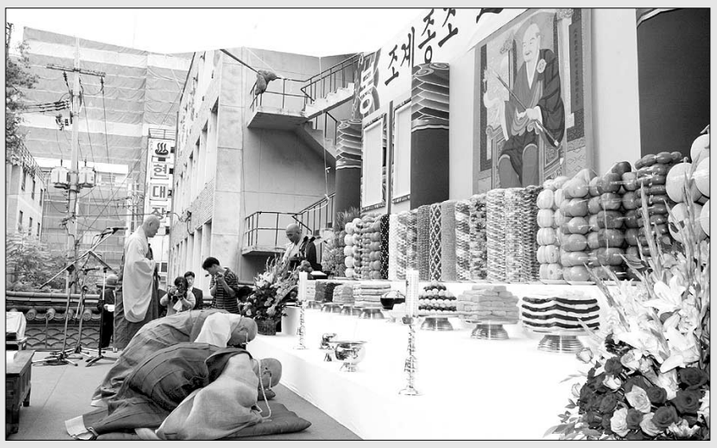
진각종은 이번 방문에서 따보승원과 정신적·문화적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것은 물론, 달라이 라마가 집전한 금강계 37존 만다라 관정법회에 참석하는 등 티베트 불교와의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다.

달라이 라마 등 티베트 불교 지도자와의 만남을 갖은 진각종은 의궤, 수행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교감과 실질적인 교류약속을 이끌어냈다. 따보승원측은 금강계 37존 만다라 관정법회에 앞서 열린 가지불사 의식(관정의식을 집전할 금강아사리가 불보살로부터 가지가피를 받아 상응하는 의식)에 진각종 대표단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특수한 지위에 있는 스님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가지불사 의식을 진각종 대표단과 함께 집전한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진각종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티베트사원과의 인적교류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냈다.

진각종은 이번 방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티베트 불교와의 교학적 교류와 국제교류에 대한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전담할 국제교류팀을 종단 산하기구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각종은 또 한국 일본 티베트 몽골 네팔 등의 밀교종단이 참여하는 세계밀교도대회(가칭)를 개최하는 등 밀교활성화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조계종조 도의 국사 첫 다례재
19일 조계사, 법전종정 법어

조계종 종조 도의 국사 첫 다례재가 기일(음력 5월 2일)인 6월 19일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앞마당에서 봉행됐다. 다례재에서 종정 법전 스님은 "후학들의 보은심(報恩心)은 진전사지(陳田寺址)를 복원하고 조계도량에서 법은(法恩)을 기리는 조주청다(趙州淸茶)를 올리노니 그 크신 은혜 깊이 새겨 전종도(全宗徒)들은 그 법(法)을 만고(萬古)에 길이 유전(流轉)케 할진져"라고 법문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 발족
7월1일 종령기구로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7월 1일 발족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6월 22일 제71회 교육원 회의를 열고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칭)' 운영과 구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원장 청화 스님과 향적(교육위), 무관(교재편찬위), 지안(역경위) 스님 등은 승가교육제도개선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7월 1일 발족하기로 결의했다. 총무원 산하 종령기구로 출범하는 추진위원회는 5명의 지도위원 등 20여명의 분과 위원들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범어사 강원 신임 강주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강사 월호(해인사) 스님 등 6명의 교직자 자격이 인정됐다. 조용수기자

공동대표의장 법장스님
한국종교지도자협

제7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공동대표 의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추대됐다.

종지협은 6월 21일 서울 한국의 집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7대 공동대표 의장으로 법장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법장 스님은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남동우 기자

직능 보궐선거 7월23일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선원 1명) 보궐선거가 7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보궐선거는 승랍 15년, 연령 35세 이상으로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40조에 규정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스님에 한해 7월17일부터 19일까지 등록 받는다. (02)2011-1864 남동우 기자

제4차 포교연찬회 주요내용

"계층별 법회를 통괄하는 통일된 의례 및 귀의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각 연령대별 수준과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지도자 양성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6월 23일 조계종 포교원이 개최한 '제4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김병주 포교원 신도과장은 '계층단체·계층분야의 포교역량 강화'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현재 종단은 어린이법회에서 학생법회로, 학생법회에서 대학생 법회 등으로 이전하는 계층별 신행조직 이전체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어 "각 신행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정체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포교활동에 주력할 새로운 인력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고, 이로 말미암아

계층별 법회 통괄
통일된 의례 필요

학교교육현장부터
포교여건 개선해야

각 신행조직들의 사업 및 활동 등이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며 "이는 종단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각 단위 사찰들의 실천과 지도자들의 노력이 같이 이뤄져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학송 광동중학교 교장 또한 '종단 포교 인력 육성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포교의 문제점은 새싹포교라 일컬어지는 학교교육에서도 드러난다"며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중 기독교 종립학교는 24.5%로 나타났으나 불교종립학교는 1.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또 "학교교육이 청소년들의 사고와 가치, 종교관 성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종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와 대안학교 등의 불교학교화에 종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기자

부처는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

〈SBS-TV〉 "오픈스튜디오", 〈MBC-TV〉"즐거운 문화읽기" 등 20여 언론에 보도된 화제의 베스트셀러 !

선방에서 화두잡고 앉아 무념무상에 빠지는 것만이 무심?
유기농과 스파 갖춰놓고 잘 먹고 잘사는 게 웰빙이라고?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혼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망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쌩쌩하게 일하기!
수치심을 벗으면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 가듯 죽는 방법!

부처님처럼 웰빙하는 통쾌하고 시원시원한 마음 명상법,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이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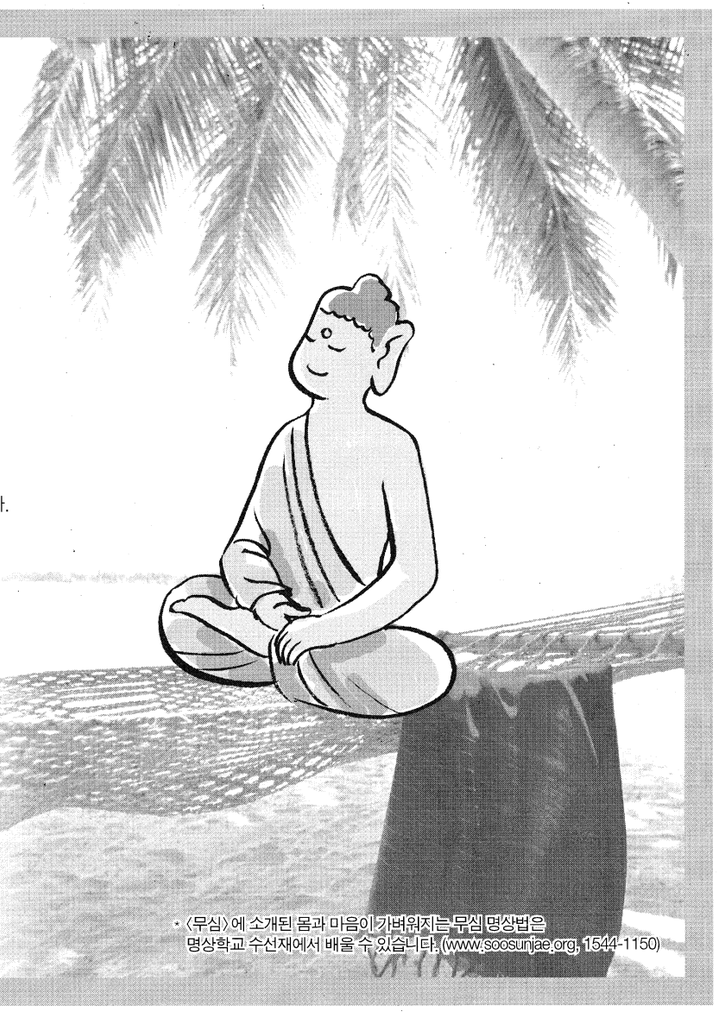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대'에서
별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MBC-TV & SBS-TV
"오픈 스튜디오" 교재!

책 이 름 : 무심(無心) ·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저 자 : 문 화 영
가 격 : 9,000원

도서출판 수선재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391-9315 FAX 02)391-9314
WWW.SOOSUNJAE.COM



* 〈무심〉에 소개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무심 명상법은
명상학교 수선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www.soosunjae.org, 1544-1150)